

☞ 정책동향 ...

KOVA

중기청, 하반기 2개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 설립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2개의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Secondary Fund)를 추가 설립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는 벤처캐피탈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창투자 등이 보유한 투자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처음 설립된 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운영중이다.

중기청은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 시장에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성되는 펀드는 300~5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을 창투자 및 창투자조합이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게 된다.

기술혁신중소 10억 신용대출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선정, 14개 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뽑아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특히 이번 이노비즈에는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속해 야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희망업체는 이노비즈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노 대통령, '벤처기업 활성화에 강한 의욕'



▲ 노무현 대통령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소재 숙소인 페어몬트호텔에서 수행한 벤처기업협회 장홍순 회장 및 터보테크 대표, 휴맥스 변대규 대표, 로커스 김형순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 등 벤처기업인 4명과 만나 벤처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기술평가 능력 강화와 지원방안 개선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장 회장 등 벤처기업인들은 노 대통령에게 미국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이 기업공개(IPO)보다 16배나 많은 점을 들며 국내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정통부, IT수출종합정보센터 신설키로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해외 IT시장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에 'IT수출종합정보센터'를 신설, 'IT해외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6월중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IT수출종합센터'에는 지역·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IT수출 애로상담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세제·금융·법률·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반기별로 수출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업계동향 ☜

KOVIA

BIT융합기술 산업화 앞당긴다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근)와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을 융합하는 차세대 신기술 개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각 부처는 차세대 성장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달 중 '신기술융합발전추진기획위원회'에서 도출된 융합 신기술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개 과제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하고 BIT(BT-IT)·NIT(IT-NT)·NBT(NT-BT)·SI(NT-IT-BT-ST)·정책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눠 융합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부는 IT를 기반으로 한 생명현상과 관련된 생체 콘텐츠 및 공유를 위한 원천기술, 바이오-나노전자소자, 나노 광정보 저장기술, 생체기능모방 나노소자 설계 및 제작 등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융합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e바이오시스템 산업화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e바이오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및 국가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과 음성인식 등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전략산업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최근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서 '지능형 생물정보 기술을 이용한 생물소재 개발 및 생산시스템 개발' 등 BIT 융합기술 개발과제를 시작했다. 또 BIT 등 융합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한양대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내에 바이오칩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진화적응 하드웨어, 생체칩 등 슈퍼지능칩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나노기술 특수의료기기 안전성·성능평가 등 BT와 NT를 이용한 첨단제품의 허가 관리에 대한 과제를 진행 중이다.

☞ 산업동향 ☜

KOVIA

재경부, '증시통합안' 발표... 'IT·벤처기업' 위축 우려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는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한국선물거래소 등 증권 및 선물시장을 완전 통합, 주식회사 형태의 단일거래소로 재편하는 증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통합거래소 본부는 부산에 두기로 했으며 개장시기는 관련법규가 정비되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장 이후 6년여 동안 미국 나스닥시장을 모델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터전역할을 해온 코스닥시장이 한국선물거래소와 함께 새출범하는 통합거래소에 완전 흡수돼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고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코스닥시장과 한국선물거래소 측은 반대, 증권거래소 측은 찬성을 입장을 밝혔다.

증시 일각에서는 코스닥시장이 등록기업들의 잇따른 거래소 이전결정과 IT경기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이번 정부 통합방침에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등록 IT기업마저 그동안 누려온 기술주로서의 기업평가 혜택이 전종목의 통합거래로 인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산업동향 ☜

KOVIA

KAIST 세계 첫 '중공형 원통 프리즘' 개발

직진성을 가진 레이저 빔을 평면상에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사출할 수 있는 프리즘과 광학부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특히 이 프리즘의 원리를 전세계 47개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과학지인 네이처에도 기고하기 위해 논문을 준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공홍진 교수는 원형 유리 튜브에 레이저 빔을 수직으로 발사하면 전후, 상하좌우 360도 방향으로 빔이 퍼져나가는 원리를 '중공형 원통프리즘(HTP)'으로 이름붙여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보안시스템과 토목분야의 레이저 레벨기에 우선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원리는 이중 구조로 된 유리 튜브의 외부 및 내부 표면에 레이저 빔을 방사하면 무한한 반사와 굴절이 생기면서 평면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 최고의 성능을 가진 보안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레이저가 활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중공형 프리즘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KOVIA